



의 문제, 내 상황을 내 배경에 맡기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천에서 답을 찾을 때만이,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51절에서와 같이 교만한 자들이 조롱하여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52절의 말씀처럼, 주신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한 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정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시며 우리를 돌보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밤에도 우리 가정 모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4~56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나이다'. 말씀 안에 거하고자 몸부림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어,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의 가정,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 송 546장(통일찬송가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 같이**

- 1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2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3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 4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 하는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후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가족소식 **인도자**

가족기도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녀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폐회 주기도문 **다 같이**



2021
가족과 함께 드리는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설 가정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묵상기도 요한삼서 1:2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찬 송 288장(통일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다 같이

-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 3 주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 도 가족 중에서 다 같이

성경봉독 시편 119:49~56(구약 892p) 인도자

- 49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 50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 51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 52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 53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 54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 55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 56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라 집례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용기를 내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용기를 불러 일으키며, 어떤 사람은 안정된 상황이, 어떤 사람은 기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결국 배경입니다. 배경이 견어지면 어떻습니까? 배경이 견어지면 결국 나 혼자 남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도 배경이 견어지고 나니,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담대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배경에 기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담대한 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배경이 아닌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49절에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절망 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리고 매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억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기억을 통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배경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배경은 금방 견어져 버리는 것이고, 문제는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의 약속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가정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안에 거할 때, 고난 중에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이 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내 인생의 원천이 될 때만이 고난 중에 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6:10에서는 욥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때만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큰 위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2021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영적인 문제, 가족